

빅스 바이더백과 20세기 초 영문학의 흐름상 유사성에 대한 고찰

김형천*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hyung_chun@yahoo.com

A Study on the Similarity between Bix Beiderbecke and early 20th English Literature

Hyoeng Chun Kim*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빅스 바이더백이라는 트럼펫 연주자는 일반적으로 백인재즈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1920년대 초 흑인 재즈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빅스 바이더백의 독창성이 20세기 초 영문학에서의 새로운 사조였던 ‘의식의 흐름’이라는 표현법과 그 유사성이 깊은 것으로 본다. 음악과 문학과 그 흐름상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서로 어떻게 받았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표현방법 면에서 볼 때 두 다른 예술 분야에서의 유사성은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다. 특히 미국의 한 재즈연주자의 연주가 같은 시대 영국의 문학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면, 현재 우리에게도 다른 분야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상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보다 폭 넓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key words : 빅스 바이더백, 백인재즈, 흑인재즈, 의식의 흐름, 20세기 초 영문학.

1. 서론

2. 본론

20세기 초 미국 재즈는 흑인이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백인들의 흑인 밴드에의 참여와 흑인답게 연주하는 백인 재즈연주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빅스 바이더백(1903-1931)처럼 백인다운 재즈를 처음 선보인 인물도 드물다고 하겠다.

시기적으로도 아직 백인다운 재즈를 선보이기에는 흑인 재즈의 위세가 너무 강하였으며 흑인 재즈 또한 아직 어떤 정립, 정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시대 상황에서 백인다운 재즈를 처음 시도한 빅스 바이더백이란 인물을 재조명하고 그의 새로운 시도가 음악적인 부분이라기보다 20세기 초, 당시 미국 지식인층에서 받아들였던 영문학의 흐름에서 그 연관성을 찾고자 함이다.

2.1. 시대배경-1920년대 영국의 상황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전쟁 직후에는 호경기였으나 1년 반 정도 후 갑자기 불황에 빠지면서 미국에게 세계 경제권의 우위를 빼앗겼다. 이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분쟁이 격화됨과 더불어 노동당이 세력을 얻어 1924년에는 최초로 노동당 내각이 서게 되었다. 그리고 1926년 5월에는 동맹파업이 벌어졌고 탄광파업은 11월까지 계속되는 등 소요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기존의 질서, 즉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서 벗어나 개인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성을 표출하는 특징을 보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에서 뿐 아니라 예술분야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2.2. 20세기 초 영문학-제 1차 세계대전까지

영문학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걸쳐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 여러 나라의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예: 노르웨이의 Ibsen, 스웨덴의 Strindberg, 러시아의 Tolstoy, Dosto-evsky, 등의 작가들이 소개됨) 아일랜드의 문예부흥 운동도 영문학에 켈트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1914년에 제 1차 대전이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나자 불안과 혼란의 20세기적인 작가들, T. S. Eliot, James Joyce, D. H. Lawrence, Virginia Woolf, Aldous Huxley 등이 문단의 주류를 형성했다.

2.3. 1920년대

제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컸고, 구가치에 대한 불신과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 등이 대전 후의 사회를 뒤덮었다. 19세기의 낙천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현대적인 정신풍토가 출현했다. 이 시대의 문학은 개인주의적, 주지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20세기가 되어 무성하게 쏟아져 나온 소잡지 등을 근거로 대담한 실험적 수법이 시도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를 '실험의 시대' 또는 'modernism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시대는 영문학사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한 시기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때의 대표적인 문학경향으로는 Eliot의 전통주의와 Lawrence의 원시적인 생명찬미, 의식을 유일한 근거인 실재라고 생각하는 Woolf의 사고, Joyce의 예술지상주의, Huxley의 회의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전쟁에 의한 질서붕괴, 그리고 그 후의 혼란과 새로운 생활태도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2.4. 20세기 초 영문학의 새로운 사조



20세기 초기의 소설은 외적 자연주의에서 내적 자연주의로 옮겨져 인간의 의식의 흐름을 작품에 옮기는 데 관심을 가진 '의식의 흐름' 수법의 작가들, James Joyce(1881-1941)와 Virginia Woolf(1882-1941) 등이 있었다. 20세기 소설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10년 이후 주목되는 소설가로는 Joyce 외에 D. H. Lawrence(1885-1930), E. M. Forster(1879-1970) 등이 있다.



Virginia Woolf(1882-1941) : 인물의 내면을 헤치고 들어가서 의식 속의 감정과 사고가 의식의 표면에 드러나는 그대로를 인물에게 말하게 하는 '의식의 흐름' 내지는 '내적 독백'의 수법을 사용한 작품을 썼다. 거의 작품마다 새로운 수법을 시도했지만 인물내면의 묘사에 중점을 두는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대표작품으로는 [달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과 [등대로(To the Lighthouse, 1927)] 등이 있다.

James Joyce(1882-1941) : Woolf와 같은 섬세함은 없지만 남자의 대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하였다. 개인의 의식에 감각·상념·기억·연상 등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문학에 이용하여 《젊은 예술가의 초상》(1916)과 같은 작품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조이스는 이 방법을 에두아르 자르맹이란 작가의 작품인 《월계수는 베이었다》(1888)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그의 작품 《율리시스》(1922)에서도 의식의 흐름을 철저하게 추구하여 1인칭적인 시점에서 주인공의 성격 전체를 보일 수 있도록 기분이나 감정이 리듬이나 패턴을 수반하여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내면의 독백'이라고 한다.



이처럼 Woolf와 Joyce가 가장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의 사용자들이었는데 이는 기존의 고전적인 기술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실로 혁신적인 것이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플롯이 없으며 인물의 생각이 진행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20세기 초 영문학에서 가장 신선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의 형식과 틀을 벗어난 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했던 기준적인 부분을 가장 인간적인 것에서 찾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5. 빅스 바이더백과 의식의 흐름 기법

빅스 바이더백은 1903년 아이오아주 다넨포트에서 태어났다. 독일인을 조상으로 둔 빅스 바이더백은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았지만 정식 유럽음악 교육을 받

지 않고 독학으로 코넷을 배웠다. 축음기를 상대로 스스로 음악을 배운 탓에 그의 연주는 정석이 아니게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빅스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기표현’이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자기 자신을 거짓 없이 표현하려 했던 것이 그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 재즈는 흑인 연주를 중심으로 그 흐름을 잡고 있었다. 물론 뉴올리언스에 흑인 밴드와 때를 같이한 백인 밴드도 있었고, 빅스 자신이 영향 받았던 백인 연주자들이 존재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빅스 바이더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인 연주자들은 동시대 흑인을 흉내 내는 정도의 연주를 보인 것이지 빅스 바이더백만큼 독특한 연주 느낌을 내지는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빅스의 연주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인 비브라토가 없고 이론적이거나 화성에 고정된 연주를 보이지 않는 점은 그 만의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빅스의 대표 음반 중 하나인 “Riverboat Shuffle”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연주 느낌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독창적인 의도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빅스가 백인인 점과 그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보수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지식층이 공유하고 있었던 영국의 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았음은 분명하다. 빅스가 교육받고 자라던 시기와 연주자로서의 길을 가던 시기가 바로 영문학 시기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새로이 태어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에 그 유사성이 매우 깊다. 흑인들 보다는 보수성이 강한 부모로부터 영국의 문학을 접할 수 있었으며 그 당시 문학의 새로운 사조라는 것이 개인 내면을 표현하고 형식이 없으며 단지 흘러가는 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빅스 바이더백의 연주에서 보여 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대 유행하던 흑인들의 연주 방식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특징들은 외부적인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부적인 요소들 중 세계대전이 가져다 준 개인주의적 영향도 컸지만 표현 형식의 자유라는 면에서 볼 때 문학에서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 진다.

흑인 연주라는 커다란 매너리즘은 Virginia Woolf의 ‘Modern Fiction’에서 언급한 ‘materialist’ 이란 단어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유행하던 19세기 문학에서부터 보여 졌던 고전적인 표현 방식을 비판한 이 글에서 Virginia Woolf는 Wells, Bennett, Galsworthy는 당대에 활동하는 중요작가들이지만 그

들의 문학적인 결합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materialist’로 표현한다. 삶의 외면적인 것들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Woolf는 이러한 작가들을 비판하는데 20세기 초 흑인 연주를 모방하던 백인 연주자들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겠다. 초기 빅스 바이더백이 모방하고 존경했던 백인 연주자들 또한 흑인들의 새로운 재즈 사조를 그대로 답습하던 시기에 빅스라는 인물은 훗날 마일즈 데이비스가 시도했던 쿨 재즈의 근간이 되는 연주방식을 이미 20세기 초에 보였다. 버지니아 울프가 ‘의식의 흐름’ 기법의 대가였던 제임스 조이스를 현대문학의 선구자로 인정한 것처럼 cool한 음색의 시초라고 보여 지는 레스터 영이나 이후의 백인 연주자들인 게리 멀리건, 켈트 베이커의 연주의 시작은 빅스 바이더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결국 백인 재즈라는 새로운 시도는 기존의 것을 깨려고 한 경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빅스 바이더백이 ‘의식의 흐름’ 기법에서처럼 외면적인 표현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하면서 저절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결론

모든 예술분야는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그 흐름에 유사성이 발생한다. 전혀 다른 분야라도 그 시대배경에 전혀 무관하기는 힘든 것이다.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는 예술 분야를 보더라도 사회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다. 재즈 초기에서 나타난 빅스 바이더백이란 인물과 영문학의 흐름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당시 사회 배경과 모든 예술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비형식성,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흐름을 볼 때 간과하기에는 그 유사성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정규교육이 아닌 독학을 통하여 자신의 연주세계를 펼쳤던 빅스 바이더백과 같은 인물에게 20세기 초 영문학에서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 빅스 바이더백의 연주는 그 당시의 연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고 축음기를 통하여 음악을 익혔다면 당시 흑인 음악을 따라 갔을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반대의 느낌을 보인 것은 무엇인가 다른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그 영향이 여러 가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20세

기 초 영문학과와의 연관성에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빅스 바이더백과 ‘의식의 흐름’이란 문학 표현법은 동시대의 전통적인 사고에서 탈피한 획기적인 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한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의 유행과 흐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거스르면서 또 다른 새로움을 탄생 시키는 이른바 선구자적인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현대 문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의식의 흐름’이란 표현법을 고전 형식의 탈피로 시도 했던 버지니아 울프와 제임스 조이스의 행로가 흑인 음악이라는 형식이 팽배한 시대에 그에 대한 탈피로 빅스 바이더백이 보여준 표현과의 유사성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상과 예술분야에서 또 다른 탈피를 시도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이 쇼이치, “A History of Jazz”, 삼호출판사 1995
- [2] 손미령, 殘雪의 모더니즘 소설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 [3] 김선희, James Joyce의 “의식의 흐름기법” 연구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중심으로, 강릉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4] 민대기, 버지니아 울프 소설의 창작 기교, 수원대학원 박사논문 2003
- [5] 하영란,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연구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6] 박명희, James Joyce의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 나타난 미학적 형식주의 연구, 한국 교원대학원 석사논문 1999
- [7] Alyn Shipton, A new history of jazz, Continuum 2001
- [8] 스티즈 터클, Giants of jazz, 이매진 2006